CEO Brief는 보험산업 관련 이슈를 분석하여 보험회사 CEO와 유관기관의 기관장분들께만 제공되는 리포트입니다.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및 향후 과제

요 약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에서는 보험사기행위의 알선·유인· 권유·광고 금지, 금융위원회의 자료제공 요청권, 보험사기죄에 대한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음. 한편 법 개정과 별도로, 실제 보험사기의 처벌 및 제재에 있어 실효성을 높임으로써(보험사기에 대한 엄정한 수사 및 처벌, 행정제재의 적극적 활용 등)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보험사기를 감축·예방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할 필요가 있겠음

#### 1.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의 주요 내용

- 최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16건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정무위원회 대안이 마련되었고(2023. 11. 30), 이후 두 차례에 걸친 법제사법위원회(2024. 1. 8 및 2014. 1. 24)를 거쳐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2024. 1. 25), 현재 정부에 이송된 상태임(2024. 2. 2)1)
- 이번 개정안에서는 ① 보험사기행위의 알선·유인·권유·광고 금지, ② 금융위원회의 자료제공 요청권, ③ 보험사기죄에 대한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④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의무, ⑤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 의무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 우선, 개정안에서는 보험사기행위의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함
    - 누구든지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보험사기죄와 동일한 수준의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함(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sup>2)</sup>

<sup>1)</sup> 이후 대통령의 법률안 공포 절차를 거치면 법이 개정됨

<sup>2)</sup> 최근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등의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보험사기행위의 알선 등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자 하는 취지임

- 또한 개정안에서는 금융위원회의 자료제공 요청권 등에 관한 내용을 새로 도입함
  -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행위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 보험회사 등에 필요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험사기행위의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행위의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를 발견한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하여심의 및 시정요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개정안은 보험사기죄에 대한 형사처벌 시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자동차보 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에 관한 조항도 신설함
  - 현행법상 보험사기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해당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입원적정성 심사와 관련하여, 심평원으로 하여금 입원적정성에 대한 체계적인 심사를 위해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 경우 수사기관 등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함
  - 또한 보험회사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보험사기행위로 자동차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을 확인 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기 피해사실 및 후속 처리절차 등을 고지해야 함<sup>3)</sup>
- O 한편, 보험업 관련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및 명단 공표, 보험사기 목적 강력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 반환 의무 도입, 입원적정성 심사 비용 지원 등에 관한 항목들은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되었음
  - 위 항목들은 정무위원회 원안에는 포함되어 있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단계에서 개정안에서 삭제됨
    -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등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법정형 상향이 아닌 양형에 의한 해결 가능성,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타 입법례 및 법체계 고려 필요성 등을 감안함), 위항목들을 일단 제외하고 큰 이견이 없는 항목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 것으로 이해됨

### 2. 향후 과제

- 이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을 통해 보험사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함
  - 2016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시행 이후로 제20대 국회 및 제21대 국회에서 수많은 개정안이 발

<sup>3)</sup> 현재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할증보험료 환급 절차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임

의되었었는데, 이번에 8년여만에 처음으로 실제 개정이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비록 일부 항목들이 개정안에서 제외되긴 했지만 보험사기행위의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 금지 조항 및 금융위원회의 자료제공 요청권 조항이 신설된 것은 유의미한 입법이라고 생각되며, 이를 통해 보험사기에 대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함
- 한편 법 개정과 별도로, 실제 보험사기의 처벌 및 제재에 있어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보험사기를 감축·예방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검찰 처분 및 법원 선고 현황에 의하면 보험사기죄의 경우 일반 사기죄와 비교하더라도 그 처벌 수준이 낮은 편인데,<sup>4)</sup>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고 실효성 있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기죄 에 대한 엄정한 수사 및 처벌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겠음
    - 보험사기죄는 특정 피해자(보험회사)의 손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 집단 전체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고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해야 하는 보험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범죄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적으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보험사기죄에 대한 수사기준과 양형기준을 별도로 세우고 해당 기준에서 보험사기죄에 대한 엄중 처벌의 원칙을 명시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겠음
  -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행정 제재의 적극적 활용 및 정보의 공유·관리도 중요할 것임
    - 보험사기죄로 적발되더라도 벌금형 위주로 처벌되는 현 상황에서, 특히 업무나 직업상의 전문성을 이용해서 보험사기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나 직업과 관련한 영업정지, 면허취소 등의 행정 제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음
    - 본업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에 의한 행정제재의 경우<sup>5)</sup> 실질적인 불이익과 그로 인한 심리적 경각심 고취 및 범죄 예방 효과가 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이울러, 보험사기 조사·수사를 위한 정보 공유, 보험사기 관련 각종 데이터 축적 및 사후 관리, 보험 사기 사례의 홍보·교육 등이 정부합동대책반이나 보험조사협의회 등을 통해 종합적·통일적으로 운영· 관리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겠음

백영화 선임연구위원pyh@kiri.or.kr

<sup>4)</sup> 검찰 처분 현황을 보면 보험사기죄의 경우 일반 사기죄에 비해 구약식 및 기소유예 비중이 높음. 또한 제1심 형사법원 선고 현황에 의하면 보험사기죄는 일반 사기죄에 비해 벌금형 선고 비중이 매우 높고 유기징역의 실형이 선고되는 비중이 매우 낮음

<sup>5)</sup> 예컨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등의 방법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거나 가담한 경우 의료법상 자격정지 조치가 가능함

CEO Brief is a report highlighting key current issues the insurance industry faces.

# Amendment of the Special Act on Prevention of Insurance Fraud and Future Challenges

**ABSTRACT** 

The amendment of the Special Act on Prevention of Insurance Fraud recently pa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introduced new provisions including the prohibition of solicitation, inducement, persuasion, and advertising of insurance fraud, the authority to request information for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concurrent imposition of imprisonment and fines on insurance fraud crimes, the establishment of criteria for inpatient assessment, and the notification of incidents related to automobile insurance fraud. Apart from the amendment,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prosecuting and sanctioning insurance fraud (such as rigorous investigation and punishment for insurance fraud, active utilization of administrative sanctions, etc.), raise the awareness on insurance fraud and maintain the efforts to reduce and prevent insurance fraud.

# 1. Highlights of the Amendment for the Special Act on Prevention of Insurance Fraud

Recently, the amendment of the Special Act on Prevention of Insurance Fraud (hereinafter referred to as 'Act') was pa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plenary session. 16 amendment proposals for the Act, introduced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were incorporated into an alternative proposal by the National Policy Committee as of November 30, 2023. Subsequently, the proposal went through two



sessions of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on January 8 and January 24, 2024. The proposal recently pa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plenary session on January 25, 2024, is currently transferred to the government as of February 2, 2024.<sup>1)</sup>

The newly introduced provisions in this amendment are as follows: ① Prohibition of solicitation, inducement, persuasion, and advertising of insurance fraud, ② Authority to request information for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FSC'), ③ Concurrent imposition of imprisonment and fines for insurance fraud crimes, ④ Obligation to establish criteria for inpatient assessment, ⑤ Duty of disclosure of events related to automobile insurance fraud.

Firstly, in the amendment, a new provision has been added to prohibit the activities of solicitation, inducement, persuasion, and advertising of insurance fraud. According to this provision, anyone is prohibited frrom engaging in the case of soliciting, inducing, persuading, or advertising insurance fraud. Offenders of this provision are subject to criminal penalties equivalent to those for insurance fraud (imprisonment for up to 10 years or a fine of up to 50 million won)<sup>2)</sup>. Secondly, in the amendment, new provisions have been introduced regarding the authority of the FSC to request information and related matters. Specifically, the FSC has the authority to request necessary information from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insurance companies, etc., for efficient investigation on insurance fraud. It may also reques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to submit necessary data for the investigation of solicitation, inducement, persuasion, and advertising for insurance fraud. Furthermore, if the FSC finds a case of solicitation, inducement, persuasion, or advertising related to insurance fraud, it may request the Korea Communication Standards Commission to review and demand its correction. Thirdly, in the current Act, the punishment for insurance fraud is imprisonment for up to 10 years or a fine of up to 50 million won. However, in the amendment, a new provision has been added to allow for concurrent imposition of both imprisonment and fines for this offense. Fourthly, regarding the inpatient assessment by the

<sup>2)</sup> With the recent increase in cases, such as promoting insurance fraud through online services, the goal of the amendment is to explicitly prohibit acts like solicitation of insurance fraud within the legal framework.



<sup>1)</sup> Afterward, the act is amended through the promulgation process by the President.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HIRA'), the amendment stipulates that HIRA should establish systematic criteria for the inpatient assessment, and in such cases, HIRA is required to engage in prior consultation with investigative agencies. Finally, a new provision regarding the duty of disclosure regarding incidents related to automobile insurance fraud has been introduced. According to this, if an insurance company confirms fraudulent cases related to automobile insurance that resulted in unfair premium increases, the insurance company must notify the policyholder or the insured about the insurance fraud incident and the subsequent procedures.<sup>3)</sup>

However, items such as enhanced penalties and public announcement of insurance professionals, increased penalties for violent crimes aimed at insurance fraud, the obligation to return insurance benefits obtained through fraud, and support for the cost of inpatient assessments have been excluded from this amendment. These items were initially included in the draft proposed by the National Policy Committee, but removed from the amendment during the legislative deliberation process under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suggested the need for careful review of the aforementioned items. Accordingly, these items were excluded for now, and priority was given to advancing the amendment for items with no significant disagreements.

### 2. Future Challenges

Hopefully, the amendment of the Act woul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effective countermeasures against insurance fraud. Since the enactment and enforcement of the Act of 2016, multiple amendment proposals have been introduced in the 20th and 21st National Assemblies, and it is meaningful that an actual amendment is being pursued for the first time in over eight years. Although

<sup>3)</sup> The amendment explicitly legislates the process for refunding surcharge premiums to victims of auto insurance fraud, which has been voluntarily practiced by the insurance industry.



some items were excluded from the amendment, the newly introduced provisions prohibiting solicitation, inducement, persuasion, and advertising for insurance fraud, as well as the authority to request information for the FSC, are considered significant legislative measures. It is expected that these additions enable a more effective and proactive response to insurance fraud.

Meanwhile, apart from the amendment,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prosecuting and sanctioning fraud to raise awareness, and maintain the efforts to reduce and prevent insurance fraud.

Firstly, when examining the current status of disposition by the prosecution and the sentencing in criminal courts, the level of penalty for insurance fraud crimes is relatively low compared to general fraud offenses. To effectively enforce the legislative intent of the Act, rigorous investigation and punishment for insurance fraud crimes would be necessary. Insurance fraud crimes not only result in harm to a specific victim (e.g. insurance company) but can also cause damage to the entire group of innocent policyholders. Considering the nature of this crime, which has the potential to undermine the foundation of the insurance system as a social safety net, there is a fundamental need for strict punishment. In this regard, it is possible to consider establishing investigation and sentencing criteria for insurance fraud crimes, specifying the principle of rigorous punishment for insurance fraud crimes within these criteria.

In addition, it is important not only to employ criminal penalties but also to actively utilize administrative sanctions to raise awareness of insurance fraud and effectively prevent it.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the penalty for insurance fraud is mainly a fine, it would be appropriate to actively use administrative sanctions such as business suspension and license cancellation, etc. especially for those who use their business or professional expertise to commit insurance fraud. If individuals who commit insurance fraud face administrative sanctions under the laws regulating their primary professions, they may experience substantial disadvantages. This can enhance psychological alertness against insurance fraud, effectively preventing future crimes. Furthermore, it may be considered to comprehensively and uniformly



operate and manage the sharing of information for investigating and prosecuting insurance fraud, accumulating various data related to insurance fraud, and post-management, as well as promoting and educating about insurance fraud cases. This could be achieved through the bodies like the Government Joint Task Force or the Insurance Investigation Council.

Younghwa Paik, Senior Research Fellow pyh@kiri.or.kr

